

## 국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용교육의 실태와 제언

강미리 숙명여대 박사수로  
박순자 숙명여대 명예교수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청각장애인(hearing impairment)의 실태를 밝히고 무용교육 현황에 대하여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서 및 논문,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재활원, 통계청, 교육부, 인터넷 자료, 신문기사를 살펴봄으로써 수행되었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청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용분야의 연구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육, 요법, 작품감상, 지도법, 프로그램, 수화무용, 장애인무용 순으로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둘째, 무용교육은 비언어성 중심의 표현의 가치를 향유함으로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사회적 발달 측면에 이르러 총체적 인간형성에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특수학교 내 무용교육의 실시를 분석한 결과 총 21개의 특수학교 중 방과후·자유활동 교육과정이 공개된 11개의 학교에서 6개의 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었다. 무용은 비정규과정에 해당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순위별로 장르를 보면 한국무용, 방송댄스, K-pop댄스와 라인댄스는 동일한 비중이며, 마지막으로 재즈댄스이다. 넷째, 과거 무용교육의 방법이 음악수업에 리듬교육 일환으로 율동과 수화가 아닌 전통적인 한국무용과 대중적인 유행을 이끄는 방송댄스, K-pop댄스 위주로 점차 신체의 활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용교육’이 인간교육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 일반인의 교육목적과 다를 바 없는 청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한 최적의 교육제도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용교육 분야의 연구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가적,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통한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많은 무용인들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가 필요하다. 향후 21세기에 부합하는 장애인 무용교육의 적용 및 전문적 수업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제안되기 위해 대학교육에서 연구되어지고 학습이 된 전문적인 지도자를 배출해야 한다. 둘째, 청각장애 연령별에 있어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된 노인기를 위한 무용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데 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동일하게 연구가 거의 전무한 영·유아기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무용연구가 가장 많이 된 아동·청소년기는 표현활동 중심의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각도에서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제안된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 학교 내 우수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활발한 표현활동 중심의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표현의지를 확대시키는 무용의 창작이 요구된다. 넷째, 실질적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청각장애인 무용교육을 하는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세대에서 세대로의 가치를 전승하기 위해 맞

춤형 지도법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교육에 관한 워크숍 및 특강을 개최함으로써 사명감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이 사회적 제반문제에 있어 소외되거나 소홀한 점이 없도록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대안으로 약자들을 참여시키는 무료수업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사회로 파견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장애인 교육에 소명감 있는 무용인을 배출하여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세우는데 기여하도록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청각장애, 국내실태, 무용교육, 무용교육 핵심가치, 장애인 무용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각장애인의 교육은 특수교육 영역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온 분야의 하나이다(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2012). 1760년 세계 최초의 특수교육기관인 파리농학교가 그 예이며, 우리나라는 1909년 농교육 사업이 시작되었다(이필상 등, 2015). 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용교육의 역사는 일반 무용교육에 비해 짧은데, 이는 청각장애인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춤을 추거나 즐길 수 없다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서현주, 2015). 국내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용교육의 계획과 지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1980년대는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 체육대학 내에 무용과가 설립된 이래 대학의 전문적인 무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신상미, 2013). 대학 내 무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초적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체기능에 있어 청각장애의 원인이 귀의 외부에 있을 경우는 일반인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원인이 청각과 연관된 신경계에 있다면 신체의 방향감이나 균형감 등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신체능력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장명재, 최현희, 1998). 이에 무용학계에서는 신체의 감각기능을 향상시켜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아에게 평형성과 신체균형 요소가 많은 무용 활동을 실시한 결과 평형성의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서은희, 2000; 이인선, 2002; 권혜영, 서지혜, 2010). 그리고 들리지 않는 장애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청각장애아에게 무용/동작치료를 실시한 결과 개인 정신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자기 표현력이 향상되었으며 내용적인 요인과 비언어적인 요인에서 두드러지는 효과가 나타났다(노영주, 2008).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은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무용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서 위축과 불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청각장애인에게 신체의 안정성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였다.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잘 듣지 못한다는 기능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무용의 도구가 ‘몸’

이라는 점에서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을 해내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오히려 무용교육이 다른 이들 앞에 나서기 꺼려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장애를 극복하며 충분히 자신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김민희, 2011). 2017년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총 5부작으로 'KBS 1TV 인간극장'이 방영되었는데,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심한 고열로 청각장애 3급을 갖게 된 발레리나 고아라(경희대학교, 발레전공)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초등학생 때부터 취미로 배우게 된 발레가 대인기피증까지 앓았던 그에게 세상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준 소중한 친구였다고 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진학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친구들의 놀림과 차별이 있었지만 발레리나로서의 무대를 선보인 뒤부터 친구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자존감을 되찾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예술교육(arts education)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변화와 성장을 이끌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Andrew, 1994). 그리고 신체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전달하는 '무용'은 신체와 정신을 다루는 예술이자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들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홍혜전, 2020). 이와 같이 무용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공존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에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니 1980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38년간 총 30편의 논문이 연구되었다. 10년 단위를 기준으로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분류하여 연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구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합계
무용교육	4	2	6	4	16
무용요법		2	2		4
무용작품		1			1
무용프로그램			2	1	3
무용지도법			1		1
수화무용			1	1	2
동향분석				3	3
합계	4	5	12	9	30

<표 1> 청각장애인 무용관련 연구현황

1980년대는 총 4편이 연구되었으며, 1990년대는 총 5편, 2000년대는 총 12편, 2010년대는 총 9편이 연구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1980년도의 무용교육 연구를 시작으로 1980년~1987년까지 총 4편이 연구되었으며 7년간 연구가 없다가 1994년~1999년까지 총 5편, 2000년~2008년까지 1~2년간 간격으로 거의 해마다 연구되어져 총 12편으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최근 2010년~2018년까지는 총 9편으로, 1980년~2018년까지 총 연구의 분야를 살펴보면 무용교육 16편(53.3%), 무용요법 4편

(13.3%), 무용프로그램 3편(10.0%), 동향분석 3편(10.0%), 수화무용 2편(6.7%), 무용작품 1편(3.3%), 무용지도법 1편(3.3%) 순이다. 해마다 연구의 편수가 일정하지 않지만 청각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용계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 수가 감소하고 있기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연구의 추세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할 실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2018)에 의하면 국내 전체인구 중 장애인구 비중은 5.0%로 발표되었다. 그 중 청각장애인의 인구는 2,585,000명으로 장애인구 유형별 비중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지체장애(47.9%), 청각장애(13.2%), 뇌병변장애(9.8%), 시각장애(9.8%), 지적장애(8.0%), 정신장애(3.9%) 순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두 번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연구자는 현재 청각장애인의 실태와 무용교육의 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무용교육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니, 청각장애아의 무용교육의 실태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최영규, 1985), 청각장애아의 정서발달을 위한 무용교육에 관한 연구(문현희, 2003), 청각장애학교 무용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김무희, 2007)들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청각장애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과정의 무용 수업이 전문성 있는 정규교육과정으로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수무용교사와 좋은 시설 하에 무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매체 및 설비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미래의 청각장애인 무용교육의 확대와 방안, 발전을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청각장애인의 실태를 적용한 무용연구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서 및 논문 및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립재활원, 통계청, 교육부, 인터넷 자료, 신문 기사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청각장애인의 실태와 현재 특수학교 내 무용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의 교육확대와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연구 대상은 청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청각장애인의 사회화에 기여하고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세우는데 기여하도록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교육의 개념과 핵심가치는 무엇인지 파악한다.

둘째, 청각장애의 원인과 유형, 특성을 제시하고 청각장애인과 무용교육의 관계에 대하여 파악한다.

셋째, 국내 청각장애인의 실태와 현재 특수학교 내 무용교육 현황은 어떠한지 파악한다.

넷째, 파악한 것을 토대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용교육의 실태에 대하여 제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무용교육의 개념 및 핵심가치

20세기 초 대학 교육 과정에 무용교육이 포함되면서 사회 속에 주어진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지니면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무용교육의 효용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김말복, 2003). 최근 2000년대는 문화예술교육의 발달과 더불어 창의성, 감수성, 인성을 가르칠 수 있는 전인교육의 한 과정으로서 무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박은희, 2008). 과거 귀족들의 고급 예술이자 교양 있는 시민들의 전유물이었던 무용은 이제 일반 대중에게는 문화예술로, 어린 학생들에게는 표현활동으로, 소수의 재능이 있는 자들에게는 영재교육으로 널리 전해지고 있다(홍애령, 2012). 무용교육에 있어서 무용은 교육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조화로운 인간의 형성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김화숙, 1996; 최정아, 2000).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하는 원만한 사회인으로서의 인간을 형성하는데 무용교육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다(윤지영, 2008). 그리고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무용교육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활동욕구와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즐겁게 해준다. 특히 타인을 이해하게 하고 억눌려진 감정을 살려내기 위한 인간화 교육을 위하여 무용은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그 교육적 가치와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김화숙, 1996; 최정아, 2000). 이렇게 무용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주체적 신체 움직임을 통해 생명력을 느끼고 자신의 움직임에 집중함으로써 얻게 되는 깨달음과 무한한 내적 잠재성의 탐구, 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창의성과 사고력 등의 결과는 인간을 위한 무용교육의 가치를 설명한다(이윤경, 2017). 이와 같이 무용교육(舞踊教育)은 인간의 미적·예술적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인간의 잠재능력을 깨우고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인간형성에 목표를 둔다. 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자연과 사물에 대한 느낌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며 자신의 경험과 풍부한 상상력을 토대로 고차원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신체의 여러 감각을 훈련함으로써 건전한 인간으로의 육성 및 문화를 인식하고 창출할 수 있는 문화적 인간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교육에서 무용의 역할은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고려하여 미완성의 인간을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서적·심리적·사회적으로 완성된 적극적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완성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무용의 교육적 가치를 설명하는 중심에는 인간의 ‘움직이는 몸’에 있다. 무용은 ‘표현교육’에 그 중심이 있으며, 움직이는 몸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만약 우리가 표현하고 싶을 때 표현하지 못한다면 적극적 인간의 완성이 아닌 소극적 인간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앞서 무용이 일반인에게 문화예술로, 표현활동으로, 영재교육으로 전해졌듯이 자기표현과 존재의 가치를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용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널리 전해야 한다. 박순자(2013)는 무용교육이 세대에

서 세대로의 가치 있는 것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사회적,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목적성과 다기능성의 역할을 감당할 무용인들을 배출하여서 사회적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고 소통하여 인재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무용교육이 사회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여 무용예술계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무용교육의 개념을 통한 핵심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교육은 전인교육의 한 과정으로 심신의 건강과 고차원적인 표현을 통해 창의성, 감수성, 인성 등 사회인으로서의 조화로운 인간형성을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무용을 통한 ‘표현의 가치’를 향유해야 한다.

둘째, 교육적으로 ‘나’라는 주체적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생명력의 가치’를 느끼는 깨달음과 잠재능력을 깨우고 계발하며 억눌려진 감정을 살려내어 ‘너’라는 타인을 이해하게 하는 큰 가치가 있다.

셋째, 무용교육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자질을 전면적·조화적으로 육성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균형 있는 인간형성’을 하는데 그 가치와 의미가 있으며 인간의 표현욕구 및 활동욕구를 충족시켜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넷째, 무용은 ‘적극적인 인간화 교육’이라는 점에서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에게 제공되는 교육경험은 본질적으로 같아야 하기에 널리 전해져야 할 가치가 있다.

다섯째, 무용의 효용과 가치를 증대하고 ‘세대에서 세대로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다목적성, 다기능성의 역할을 감당할 무용인과 국가적,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책임감 있는 무용인을 배출하여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다.

## 2.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청각장애란 부분적으로나 혹은 완전히 청력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력이 어느 정도 있어 보청기를 사용한다 하여도 미약하게 들을 수 있거나 거의 듣지 못하여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의미한다(정명수, 송채운, 1999). 이러한 청각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크게 선천적(유전적) 혹은 후천적(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약 50%가 선천적인 경우이고 그 외에 출산 전부터 분만 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선천적인 경우 혈족 결혼과 관계가 깊으며, 후천적인 경우 출생 전(임신 초기의 풍진, 기타 바이러스의 감염, 산모의 키니네 복용)이나 출생 시(분만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 등)이나, 출생 후(7세 이전의 뇌막염, 선홍열, 홍역, 티프테리아, 화농성 중이염, 심한 감기, 고열 등)와 현상(소음이나 사고)들에 의하여 청력을 손실할 수 있게 되지만, 일부 청각이상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박기용 등, 2013).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청각전달에 관여하는 기관의 이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04)에서는 난청과 농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교

육학적인 관점과 생리학적인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음의 <표 2>는 Moors(1996)에 의해서 교육학적인 관점으로 난청과 농의 이해를 분류한 것이다.

구분	정도	내용
난청 (難聽)	보통 33-69dB이상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려운 정도
농 (聾)	보통 70dB이상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

<표 2> 청각장애의 난청과 농의 이해

교육학적인 관점에서는 청력손실이 ‘말하는 능력’과 ‘언어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난청(33-69dB이상)의 경우 보청기를 착용, 미착용 상태에서 말을 들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나 농(70dB)이상의 경우 보청기 착용여부에 관계없이 청각으로 인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즉 ‘농’이란 청각으로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데 장애가 있을 정도로 교육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심한 청각장애를 의미하고, ‘난청’이란 농의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교육적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인 또는 변동하는 청각장애를 의미한다(한국 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2015). 반면 생리학적인 관점에서는 특정 강도 이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난청의 경우 청각으로 인한 언어적 활용이 가능하나 농의 경우 청각으로 인한 언어적 활용이 불가능하다.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90dB을 기준으로 그 미만을 난청, 그 이상을 농이라고 한다(원영조, 이규식, 김병하, 석동일, 1990).

청각장애는 청각기의 손상부에 따라 전음성 청각장애, 감각신경성 청각장애, 중추성 청각장애, 혼합성 청각장애, 기능성 청각장애로 분류된다. 다음의 <표 3>은 그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김영옥, 2001).

유형	내용
전음성 청각장애	음을 전달하는 기관인 외이나 중이에 병변이 생긴 경우
감각신경성 청각장애	내이와 청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중추성 청각장애	청신경이 연수에 들어가서부터 대뇌피질 사이의 중추신경계통에 장애가 있어 초래된 경우
혼합성 청각장애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혼합된 것으로 주로 전음성과 감각신경성 장애가 중복된 경우
기능성 청각장애	기질적인 장애가 없이 심인성(정신 혹은 심리적 요인)으로 나타나는 경우

<표 3> 청각장애의 유형

전음성 청각장애(conductive hearing loss)는 일반적으로 청력손실이 60-70dB을 넘지 않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감각신경성 청각장애(sensorineural hearing loss)는 청력손실이 많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대부분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중추성 청각장애(central hearing loss)는 청각신호의 정보처리과정에서의 결함으로 말소리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이해하는데 문제를 보인다(고은, 2017). 혼합성 청각장애(mixed hearing loss)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공존하며, 기능성 청각장애(functional hearing loss)는 기질적 장애가 없이 정신 혹은 심리적 요인의 심인성으로 나타나는 청각장애를 말한다(김영옥, 2001).

청각장애의 특성은 그 원인과 손실 정도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 여러 발달에 있어 장애가 나타나며, 다음의 <표 4>는 그 특성을 분류한 것이다.

특성	내용
신체적 특성	운동능력 발달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별 차이 없으나 과보호로 인한 앓거나 걷기 등의 운동부족이 생기는 것이 특징
언어적 특성	발성과 말하기에 이상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발음의 왜곡, 생략, 뒤바뀜이 나타나고 작은 소리로 말하며 문법상의 오류가 나타나는 특징
심리적·사회적 특성	항상 불안과 열등의식에 쌓여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의견충돌이 잦으며 남을 불신함이 나타나는 특징
인성적·행동적 특성	자기중심적, 이기적으로 참을성이 없으며 융통성의 결핍과 폭발적인 행동의 공격성과 충동성이 두드러지는 특징

<표 4> 청각장애의 특성

다른 장애와는 달리 청각장애는 장애를 가진 사실을 타인이 외형적으로 관찰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밖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장애는 아니다(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2012). 그렇기에 청각장애인의 신체적 운동능력 발달은 걷고, 뛰고, 도는 등의 운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비슷하다. 이는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과 듣는 소리를 뜻있는 말로 해석하는 중추기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다른 신체에는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청각장애의 원인 중 감음성 난청(청신경세포, 신경손상으로 유발)인 경우 몸의 평형감각, 머리의 공간적 위치, 방향 지각 등에 관계된 부분이므로 평형감각이 뒤떨어지고, 소리가 나는 위치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음의 방향성, 거리, 진폭 등의 판단이 열악하고 민첩성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형설출판사, 1988).

시기적으로 운동기능의 발달에 있어서는 약간의 유의차를 보이는데, 황천용(1976)에 의하면 일반인들과 비교해볼 때 4세에서는 전신운동이나 수직운동에 유의차를 보였고, 5~6세에서는 전신운동에 유의차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내적인 문제 즉, 신체적 운동의 기능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마이클버스트(Myklebust)에 의하면 부모의 과보호로 인해 운동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으며 앓거나 걷기 등이 지체된다(이태영, 1988).



언어적으로는 어린 시절 생후 5~8개월 정도까지는 일반 영아들과 큰 차이점을 볼 수 없다. 하지만 그 이후 점차 말하려는 의지와 횟수가 줄어들고, 발성도 일반아보다 고저의 차가 현저해져서 듣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김화숙 외(1996)에 의하면 수화나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들리지 않으며, 들린다 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상대방의 얼굴을 주시하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도 틀리게 들리며 사용하는 말수가 적고 범위도 좁아 주로 일어문이나 이어문으로서 짧게 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음이 부정확하고 이해하기가 곤란하여 말하는 것이 소극적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청각장애인이 가지는 일차적인 장애는 언어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리적·사회적·인성적·행동적 문제를 야기한다. 김영채(1982)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은 무능감을 갖고 항상 불안과 열등의식에 쌓여있으며 남을 불신하고 참을성이 없어 폭발적인 행동을 잘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서가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자기중심·이기적이고 반항·공격·비현실적이며, 복종적인 경향과 내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더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의견충돌이 잦은 사회적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청각장애의 특징을 보면 신체적으로는 일반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나 경우에 따라 운동부족이 생기며 소극적인 언어의 특성을 가진다. 또한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인성적으로는 내면적인 성격과 자기중심적인 감정이입 등 융통성의 결핍과 남을 불신하는 사회적 특성 및 폭발적인 행동의 공격성, 충동성이 두드러진 행동적 특성이 지적되고 있다.

### 3. 청각장애인과 무용교육

청각장애인 신체의 감각기능을 향상시켜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초등부 학습자에게 평형성과 신체균형 요소가 많은 무용 활동을 실시한 결과 평형성의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서은희, 2000; 이인선, 2002; 권혜영, 서지혜, 2010). 이 때 시행된 무용 활동은 밸런스 동작과 창작무용을 통해 음악과 동시에 복을 이용하였고, 발레의 전반적인 기본동작을 통해 활용하였다. 또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리듬감을 익힐 수 있도록 중등부 학습자에게 신체의 움직임 교육을 실시한 결과 리듬감을 익히게 되고 생각하고 감상하는 수준이 향상되며 리듬을 맞추는 데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다고 한다(정송희, 1987). 또한 창작무용으로 복소리와 말, 노래가사와 주제에 따른 손발의 협응동작을 통한 학습을 제안하기도 하였다(강은주, 2000). 이와 같이 리듬훈련이 청각장애인에게 춤을 어떻게 추는지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창의력 향상에 큰 영향을 주며, 창작무용은 신체지각과 움직임 동작을 향상시키며 언어적 어휘력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서현주, 2015). 이처럼 무용은 신체적 발달에 있어 평형성과 리듬감이라는 감각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청각장애를 가진 학습자에게 신체의 방향성과 균형감의 증가 및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의사소통의 결핍을 가지는 청각장애인은 자기의 의사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어려우며 타인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다(배혜경, 2007). 이에 정서적·심리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일반인과는 다르다. 자연스레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사회라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여 완고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고립을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 하였다(노영주, 2008).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무용교육이 정서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각장애학교에서 무용교육을 받은 졸업생 무용단을 중심으로 유경험자와 무경험자의 사회적응, 자존성, 정서적응을 살펴본 결과 유경험자에게 있어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이은경, 1994). 이는 무용이 고등부 학습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유경험자가 무경험자의 비해 정신 건강이 양호하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다(김지선, 1997). 이 연구에서는 유경험자에게 있어 무용분야별로 정신 건강에 효과적인 장르를 조사한 결과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등부 학습자에게는 창작무용을 실시한 결과 정서지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신체표현, 정신적 안정감, 미적욕구를 충족시키며 스스로 잠재되고 위축되어 있던 감정을 자유로운 움직임 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윤정, 2010). 자신과 타인에게 있어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게 만드는 정서지능의 발달은 청각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무용요법에 있어서는 초등부 학습자의 정서적 행동 발달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변인숙, 2001). 이처럼 무용교육은 청각장애인에게 신체적 움직임과 리듬감에 대한 안정감을 주기도하고 두려움이 감소되며 자아의식과 자아수용의 발달 등의 치료적 효과가 있으며(서현주, 2015) 정서적·심리적으로 자기표현능력이 향상됨으로 위축과 불안감이 감소되고 안정감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무용의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사회성과 표현력이 발달된다(서현주, 2015). 이는 현재 사회적으로 청각장애를 딛고 무용가를 꿈꾸는 학습자들에게 나타난 변화와 일맥상통하다. 앞서 서론에 언급된 고아라(경희대학교, 발레전공)와 김다솔(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이론전공)이다. 고아라는 초등학생 때부터 취미로 배우게 된 발레가 대인기피증까지 앓았던 그에게 세상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준 소중한 친구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무용은 세상과 소통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언급하였다(헤럴드경제, 2017). 또 다른 전공생 김다솔은 시끄러운 곳에서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 같은 얘기를 몇 번씩 되물자 친구들이 그녀에게서 멀어져 과거 학교에 가는 것이 싫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속상한 마음에 하늘을 걷던 중 무용학원 간판을 보고 막연한 생각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 한국무용에 푹 빠져 그 결과 현재 무용전공생의 대학생이 되었다. 그는 “춤 동작은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표현이다. 무용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다”고 하며 자신을 통해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하였다(국민일보, 2018). 이러한 변화는 무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의사소통에 두려움을 겪는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성 발달에 향상을 나타낸 것이고 좋은 파급력이 될 수 있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다니는 초등부

청각장애 학습자에게 무용/동작치료를 실시한 결과 학교생활적응도에 있어 향상을 나타내고 교사와 학생간의, 학생과의 학생간의 교우관계와 학교수업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노영주, 2008). 또한 왜곡된 자각으로 인한 사회적 능력의 결여 등 대인관계 문제가 얼마나 해소될 수 있는지 초등부와 중등부 학습자에게 무용요법을 실시한 결과 자신평가, 교사평가, 부모평가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황규자, 1998). 이와 같이 무용교육은 자신만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어 사회성과 인간관계(교사-학생, 학생-학생, 부모-자신)에 변화를 준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활적응을 하게함으로 장애라는 편견을 딛고 사회에 나설 용기를 주어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 Ⅲ. 국내 청각장애인의 실태와 무용교육의 현황

#### 1. 청각장애인의 실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sup>6)</sup>의 수는 2018년 12월 말 2,585,000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8,000명에서 빠르게 급증하였다. 다음의 [그림 1]은 2019년 장애인 통계에 따른 등록장애인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등록장애인 추이(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p.4)

국내 전체인구 중 장애인구 비중은 5.0%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다소 저조함을 보였지만 2018년도에 다시 상승률을 보이는 추세이다. 등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0년부터는 전체 인구 대비 5% 정도로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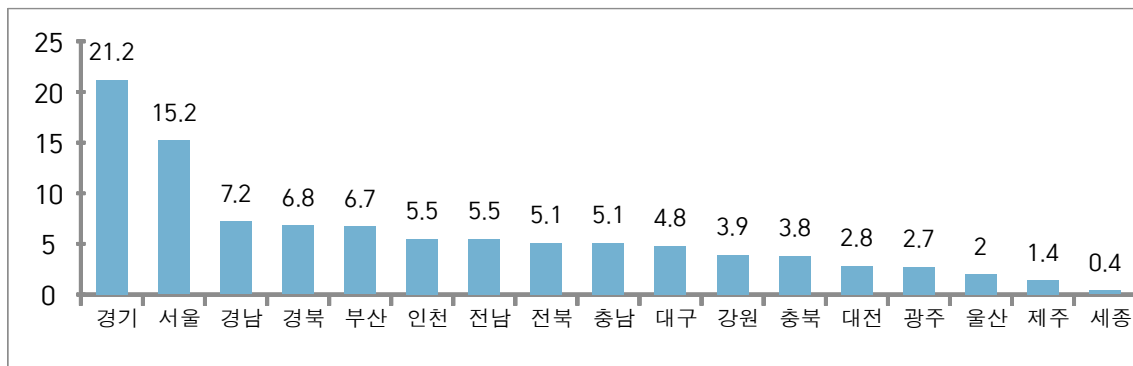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 시·군 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을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이는 1990년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정 및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현 사회의 정책수요 다양화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을 것이라 추측된다.

장애인의 고용률 현황은 2001년 0.96%에서 2018년 2.78%로 정부부문, 민간부문에서 의무고용을 이행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고용 시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인식에 관한 설문에서는 별로 느끼지 않는다(45.5%), 가끔 느낀다(27.2%), 전혀 느끼지 않는다(19.7%), 항상 느낀다(7.6%) 순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전반적인 환경이 점차 변화되고 있지만 사고사로 인한 사망률의 실태조사에서는 자살(66.8%), 운수사고(32.5%), 추락(20.8%), 익사(3.9%), 중독(2.2%), 가해/타살(1.7%)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18; 통계청, 2017). 이 중 자살률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자살률 25.6% 보다 장애인구에서 66.8%로 전체인구보다 훨씬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에 관해서는 약간 만족한다(45.3%), 약간 불만족한다(38.5%), 매우 불만족한다(12.2%), 매우 만족한다(4.0%) 순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문화예술 향유에 대해 제약요인이 많은데(김종인, 김원경, 고정욱, 오이표, 2009) 이는 장애인은 경제적 어려움, 교통수단 부족, 편의시설 미비, 여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부족, 장애인 대상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로 예술 향유가 어렵다(홍혜전, 2020). 그러나 예술교육의 필요성조차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더 심각하기에(이필상, 2010; 강영심, 김경, 2011) 장애인을 위한 문화 및 여가활동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개선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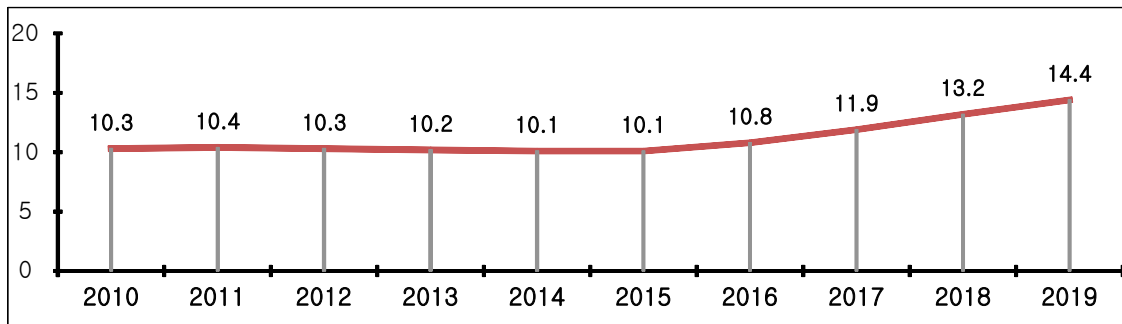
다음의 [그림2]는 우리나라 지역별 등록장애비율을 높은 지역순으로 나타낸 것이다(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2018).



[그림 2] 등록장애인 지역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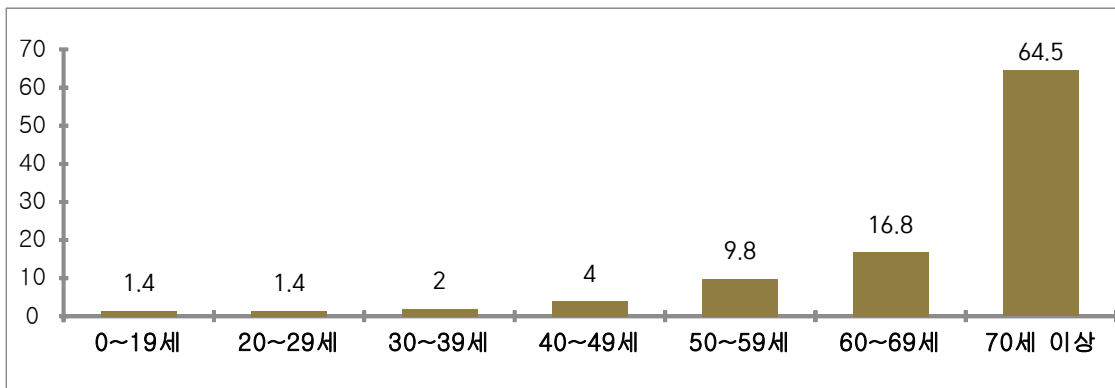
장애인구의 비중은 경기도(21.2%)와 서울특별시(15.2%)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장애인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세종특별시는 0.4%로 가장 적었다. 그 이외의 지역에는 1.4%~7.2%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순위별로 보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시이다.

세부적으로 장애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지체장애(47.9%), 청각장애(13.2%), 뇌병변장애(9.8%), 시각장애(9.8%), 지적장애(8.0%), 정신장애(3.9%) 순 등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2018). 청각장애의 인구는 두 번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청각장애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2019).



[그림 3] 청각장애인 장애인구 비율(%)

상기의 그래프를 보면 2010년~2015년까지 10% 가량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다가 2016년 이후부터 10.8%, 2017년 11.9%, 2018년 13.2%, 2019년 14.4%로 점차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연령대는 비율은 0세~19세, 20세~29세, 30세~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의 연령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다음의 [그림 4]와 같다(보건복지부, 2018).



[그림 4] 청각장애인 연령대 비율(%)

연령대 비율을 보면 0세~19세와 20~29세 각각 1.4%, 30~39세는 2.0%, 40세~49세까지는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50~59세는 9.8%, 60~69세는 16.8%, 70세 이상은 64.5%로 과반수가 훨씬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해 2019년에는 전체 등록 장애인 2명 중 1명꼴이 65세 이상인 셈이다(연합뉴스, 2020). 이러한 비율은 다른 지체, 뇌병변, 시각, 발달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고령화 인구로 등록되어 있다.

장애인의 특수교육 통계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와 담당하는 교원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정도는 지적장애(53.7%), 자폐성장애(13.4%), 지체장애(11.5%), 발달지체장애(7.2%), 청각장애(3.6%) 순 등으로 조사되었다(교육부, 2018). 통계청(2016)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30.4%), 초등학교(27.3%), 중학교(16.7%), 대학교(15.1%), 무학력(1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각장애인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는 총 21개이며 국립 1개교, 공립 7개교, 사립 13개교로서 표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위키백과 참조).

구분	학교명	합계
국립	서울농학교	1
공립	부산배화학교, 전주선화학교, 춘천계성학교, 창원천광학교, 광주선우학교, 세종누리학교, 제주영지학교	7
사립	서울애화학교, 서울삼성학교, 한국구화학교, 인천성동학교, 에바다학교, 소림학교, 부산구화학교, 대구영화학교, 메아리학교, 충주성심학교, 대전원명학교, 포항명도학교, 안동진명학교	13

<표 5> 청각장애 학습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 현황

상기의 현황에서와 같이 국립으로는 서울농학교가 대표적이며 공립으로는 부산배화학교, 전주선화학교, 춘천계성학교, 창원천광학교, 광주선우학교, 세종누리학교, 제주영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사립으로는 서울애화학교, 서울삼성학교, 한국구화학교, 인천성동학교, 에바다학교, 소림학교, 부산구화학교, 대구영화학교, 메아리학교, 충주성심학교, 대전원명학교, 포항명도학교, 안동진명학교가 있다. 이상의 총 21개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각 특수학교의 이름을 검색함으로써 접속된 홈페이지 교육현황을 참조하였다. 지역별로 청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특수학교별 교육과정을 분류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구분	학교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서울(4)	서울농학교	○	○	○	○	○
	서울애화학교	○	○	○	○	○
	서울삼성학교	○	○	○	○	-
	한국구화학교	-	○	○	○	-
인천(1)	인천성동학교	○	○	○	○	-
경기(1)	에바다학교	-	○	○	○	-
강원(1)	춘천계성학교	○	○	○	○	-
충북(1)	충주성심학교	○	○	○	○	○
경남(1)	창원천광학교	○	○	○	○	-
경북(2)	포항명도학교	-	○	○	○	○
	안동진명학교	○	○	○	○	○
세종(1)	세종누리학교	○	○	○	○	○
대전(1)	대전원명학교	○	○	○	○	○
대구(1)	대구영화학교	○	○	○	○	○
부산(2)	부산배화학교	-	○	○	○	-
	부산구화학교	○	○	○	-	-
울산(1)	메아리학교	○	○	○	○	○
광주(1)	광주선우학교	○	○	○	○	○
전북(1)	전주선화학교	○	○	○	○	○
전남(1)	소림학교	○	○	○	○	○
제주(1)	제주영지학교	○	○	○	○	○
합계		17	21	21	21	13

<표 6> 청각장애 학습자를 위한 특수학교 과정별 현황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은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있으며, 졸업 후 전문기능을 배우는 전공과 과정별로 나누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총 21개교 중 유치원은 17개교, 초·중·고는 21개교, 전공과는 13개교이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 및 취업으로 이어지는 일반학교와는 달리 총 21개교 중 13개교의 특수학교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특화된 전공과가 운영되어 맞춤형 취업과 창업 준비를 돕고 있다. 전공과목에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인터넷 정보(IT, CAD), 포장·조립, 작물재배, 도예, 섬유·목공예, 천연 DIY, 미용, 수어 등 자격증 취득 및 실습의 교육과정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각 지역에 청각장애 특성에 맞게 학교교육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 중 충청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청각장애를 위한 특수학교기관이 설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무용교육의 현황

문현희(2003)는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12개(서울농학교, 서울애화학교, 한국구화학교, 서울삼성학교, 인천성동학교, 부산구화학교, 메아리학교, 대구영화학교, 충주성심학교, 안동진명학교, 포항명도학교, 전북혜화학교(現지적장애학교))의 청각장애학교 초등부

를 대상으로 무용교육에 대한 설문지 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 정규교과과정에서는 무용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비정규시간에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비정규과정으로 실시하는 무용교육의 수업형태는 리듬교육의 일환으로서 율동인 동시에 수화나 모방에 의한 수업을 실행하고, 특별활동 및 학예회 발표를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우수한 표현활동 중심의 무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교사와 리듬을 이용한 무용교육을 원하고 있지만 무용교사가 없는 실정이었다.

김무희(2007)의 청각장애학교 무용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무용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사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무용이 청각장애인의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교육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하였다. 특히 초등부 교사들과 무용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아동의 정서 함양에 무용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용관련 교육 매체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낮고 학교별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립학교에 비하여 사립학교의 교육 매체 활용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무용교육 매체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과 설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학교 교구 시설 설비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배주옥(2014)은 통합적으로 장애인 무용이라는 단어를 제시하였으며 장애인을 위한 무용교육과 무용요법이 대체로 댄스 스포츠나 K-pop 같은 실용무용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순수무용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무용가들의 적극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청각장애학교에서 어떠한 무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특수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방과후활동, 자유활동 프로그램의 자료를 통해 교육과정을 조사한 결과, 무용이 학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무용의 장르와 교과과정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구분	내용	교과과정
A학교	우리춤체조, 방송댄스	비정규
B학교	방송댄스, K-pop댄스	비정규
C학교	한국무용, K-pop댄스	비정규
D학교	방송댄스, 라인댄스	비정규
E학교	한국무용, 라인댄스	비정규
F학교	무용, 댄스	비정규

<표 7> 청각장애학교 내 무용교육 현황(2020년 기준)

전국의 21개교 중 11개교의 교과과정과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었고, 그 중 6개교에서 이루어지는 무용교육의 학습현황을 알 수 있었다. A학교는 우리춤체조와 방송댄스, B학교는 방송댄스와 K-pop댄스, C학교는 한국무용과 K-pop댄스, D학교는 방송댄스와 라인댄스, E학교는 한국무용과 라인댄스, 그리고 F학교의 경우



세부적인 장르를 알 수 없었으나 대내외활동 신문기사를 통해 한국무용, 재즈댄스 교육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청각장애인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방과후 활동 및 자유활동(비정규과정)으로 순수무용은 한국무용, 실용무용으로는 방송댄스와 라인댄스, K-pop댄스, 재즈댄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학습의 현황은 순수무용보다는 실용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하기 때문(배주옥, 2014)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기의 학습현황을 통해 무용의 세부적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구분	장르	프로그램
순수 무용	한국무용	4
	방송댄스	3
실용 무용	K-pop댄스	2
	라인댄스	2
	재즈댄스	1

<표 8> 청각장애학교 무용교육의 세부적 분석현황

일반인에게 방과후활동, 자유활동 프로그램이 공개되어 있는 11개교 중 6개교에서 교육되고 있는 무용의 세부적 장르는 순수무용으로 한국무용, 실용무용으로는 방송댄스, K-pop댄스, 라인댄스, 재즈댄스이다. 프로그램의 수는 총 12개로 한국무용의 프로그램 수는 4개, 방송댄스는 3개, K-pop댄스는 2개, 라인댄스는 2개, 재즈댄스는 1개이다. 이를 순위별로 보면 한국무용, 방송댄스, K-pop댄스와 라인댄스, 재즈댄스 순이다. 이러한 무용교육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과정에서 진행되는지 분석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구분	장르	과정
순수 무용	한국무용	초등
	방송댄스	초등
실용 무용	K-pop댄스	초·중·고등
	라인댄스	초·중·고등
	재즈댄스	자료없음

<표 9> 청각장애학교 무용교육의 세부적 분석현황

위의 학습현황을 보면 한국무용과 방송댄스는 초등부의 과정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K-pop댄스와 라인댄스는 초·중·고등부의 과정에서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를 고려한 특수학교의 무용학습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현희(2003)의 연구에서와 같이 지금도 정규교과과정에서는 무용을 실시하지 않고 비정규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다. 반면 무용교육의 방법이 음악수업에 리듬교육 일환으로 율동과 수화가 아닌 전통적

인 한국무용과 대중적인 유행을 이끄는 방송댄스, K-pop댄스 위주로 점차 신체의 활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김무희(2006)의 연구에서는 초등부 교사들은 무용교육이 아동의 정서 함양에 효과적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공개된 학습현황을 살펴본 결과 초등부는 대부분 무용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21개의 학교 중 비정규시간이 공개된 11개의 학교에서 6개의 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었기에 더 많은 특수학교에 무용교사와 무용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용교육의 실태를 밝히고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서 및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사회보건연구원, 국립재활원, 통계청, 교육부, 인터넷 자료, 신문기사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봄으로써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용분야의 연구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육, 요법, 작품감상, 지도법, 프로그램, 수화무용, 장애인무용 순으로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무용교육을 시작으로 장애인무용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용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무용학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1980년도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용교육의 첫 연구가 시작되고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부터 급격한 장애인의 증가로 인해 현 사회의 정책수요 다양화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고용 의무제 개정으로 고용, 복지, 교육, 사회참여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전반적인 환경이 점차 변화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청각장애인의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대 무용에 관한 연구의 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실질적으로 문화 및 여가활동의 예술향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에게 무용교육은 비언어성 중심의 표현의 가치를 향유함으로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사회적 발달 측면에 이르러 총체적 인간형성에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신체 균형과 평형성, 리듬감을 향상시켜주고 의사소통과 리듬감에 대한 두려움의 완화로 안정감을 제공해주며 자아의식과 자아수용발달의 치료효과를 증명하여 왔다. 그리고 창작무용, 움직임 및 신체표현, 무용요법 등 비언어성 중심의 무용이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수반되는 언어적 어휘력과 창의력 향상은 적극적 인간으로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무용교육이 청각장애인의 재능개발 및 자립의 계기를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통해 자긍심을 높이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잦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청각장애의 한계를 넘어 사회성이 발달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에 자기중심적인 감정이입에 내향하는 인

성에 도움을 주어 세상과의 소통 및 사회에 나설 용기를 주고 다른 청각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특수학교 내 무용교육의 실시를 분석한 결과 총 21개의 특수학교 중 방과후·자유활동 교육과정이 공개된 11개의 학교에서 6개의 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었다. 무용은 비정규과정에 해당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순위별로 장르를 보면 한국무용, 방송댄스, K-pop댄스와 라인댄스는 동일한 비중이며, 마지막으로 재즈댄스이다. 실제적으로 교육의 분량은 실용무용이 순수무용보다 많은데 방송댄스, K-pop댄스, 라인댄스, 재즈댄스가 실용무용으로써 쓰이고 대체적으로 순수무용은 한국무용이 교육되고 있다. 이는 문화적으로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K-pop의 영향으로 인해 가요를 통한 댄스의 실용무용이 순수무용보다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된다. 이 과정에서 무용의 순수한 움직임 배우는 순수무용교육의 활성화 또한 균형감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과거 무용교육의 방법이 음악수업에 리듬교육 일환으로 율동과 수화가 아닌 전통적인 한국무용과 대중적인 유행을 이끄는 방송댄스, K-pop댄스 위주로 점차 신체의 활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체활동에 관하여 초등부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사들은 무용교육이 학습자의 신체적 발달과 정서적 함양에 매우 효과적인 신체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무용교육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초등부에서는 대부분 실시하고 있었다. 한국무용과 방송댄스는 초등부의 과정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K-pop댄스와 라인댄스는 초·중·고등부의 과정에서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추후 더 많은 교육과정(중등부, 고등부)에 전문적인 무용교사와 무용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무용교육’이 인간교육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 일반인의 교육목적과 다를 바 없는 청각장애인에게도 동일한 최적의 교육제도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용교육이 청각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용교육 분야의 연구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가적,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통한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많은 무용인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가 필요하다. 향후 21세기에 부합하는 장애인 무용교육의 적용 및 전문적 수업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제안되기 위해 대학교육에서 연구되어지고 학습이 된 전문적인 지도자를 배출해야 한다.

둘째, 청각장애 연령별에 있어 60세 이상이 81.3%를 차지하며 고령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된 노인기를 위한 무용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데 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동일하게 연구가 거의 전무한 영·유아기의 신체균형과 리듬감 발달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무용연구가 가장 많이 된 아동·청소년기는 표현활동 중심의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각도에서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제안된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학교 내 우수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더 많은 교육과정에 무용전문교사가 투입될 수 있

도록 활발한 표현활동 중심의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자기 표현의지를 확대시키는 무용의 창작이 요구된다.

넷째, 실질적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청각장애인 무용교육을 하는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세대에서 세대로의 가치를 전승하기 위해 맞춤형 지도법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교육에 관한 워크숍 및 특강을 개최하여 사명감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이 사회적 제반문제에 있어 소외되거나 소홀한 점이 없도록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대안으로 약자들을 참여시키는 무료수업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사회로 파견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현재 및 미래의 무용교육에 반영, 발전시켜나간다면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장애인 교육에 소명감 있는 무용인을 배출하여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세우는데 이바지 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강영심, 김경 (2011). “특수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 실태와 교사의 인식”. 『발달장애연구』. 15(3). 119-128.
- 강은주 (2000). “창작무용 학습이 청각장애아의 리듬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고은 (2017). 『청각장애아교육』. 서울: 학지사.
- 권혜영, 서지혜 (2010). “창작무용 프로그램 참여가 청각장애아동의 평형성과 신체균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1(1). 47-63.
- 김말복 (2017). 『무용예술의 이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무희 (2007). “청각장애학교 무용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민희 (2011). “무용교육이 청각장애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영옥 (2001). 『청각장애 아동 교육의 이해』. 경기: 양지.
- 김영채 (1982). “체육수업을 통한 청각 장애아의 적응 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종인, 김원경, 고정옥, 오이표 (2009).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연구 I: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현황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선 (1997). “무용이 고등부 청각 장애 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김화숙 외 무용교육학회 (1996). 『무용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학문화사.
- 노영주 (2008). “무용/동작치료가 청각장애 아동의 자기표현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문현희 (2003). “청각장애아의 정서발달을 위한 무용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기용, 서연태, 강병일, 김한철, 김동원, 최경훈, 정기천 (2013). 『특수체육학의 이해』.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부.
- 박순자 (2013). “무용예술의 발전을 위한 대학무용교육의 방향 제시”. 『대한무용학회』. 71(6). 83-110.
- 박은희 (2008).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배주옥 (2014). “장애인무용에 관한 연구동향분석”. 『한국무용연구』. 32(2). 129-148.
- 배혜경 (2007). “집단미술치료가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의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변인숙 (2001). “무용요법이 청각장애 아동의 사회·정서적 행동 발달 특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서은희 (2000). “무용 활동이 청각장애 아동의 평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서현주 (2015). “청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무용교육의 이점”.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6(1). 101-115.
- 신상미 (2013).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50년 발자취』.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 원영조, 이규식, 김병하, 석동일 (1990). 『청각장애아 교육』. 경북: 대구대학교 출판부.
- 윤지영 (2008). “학교무용교육의 가치와 수업 실천에 대한 고등학교 무용교사와 학생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이운경 (2017). “역량기반 초·중등 무용교육과정 내용체계 개발.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이은경 (1994). “무용교육 정도에 따른 청각장애인의 사회·정서 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인선 (2002). “발레를 통한 청각장애 아동의 평형성 향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태영 (1988). 『특수교육 원리』. 경북: 대구대학교 출판부.
- 이필상 (2010)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 130-140.
- 이필상, 권순황, 김수진, 김시영, 박미혜, 박선희, 정은희(2015). 『청각장애아동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장명재, 최현희 (1998). “청각장애인의 신체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6(1). 33-43.
- 정명수, 송채훈 (1999). 『특수체육』.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사.
- 정송희 (1987). “움직임을 통한 농아의 리듬감향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조운정 (2010). “창작무용교육이 청각장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최영규 (1985). “청각장애아의 무용교육의 실태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최정아 (2000). “중·고등학교의 무용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2012). 『청각장애아동교육』. 경기: 양서원.
- 형설출판사 편집부 (1988). 『특수교육 정해』. 경기: 형설출판사.
- 홍애령 (2012). “무용교육자 전문성의 핵심 차원으로서 심성적 자질의 재조명과 함양 방안”.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1). 23-42.
- 홍혜전 (2020). “장애무용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통해 바라본 장애무용교육의 방향성”. 『무용역사기록학회』. 56. 183-205.

- 황규자 (1998). “무용요법이 청각장애자의 사회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Andrew, S. H. (1994). Quality of Lif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ransition from School to Adulthood, Social Indicators Research, 33, 193-236.
- Moors, D. F. (1996). Educating the deaf: Psychology, Principles and practices. Boston: houghton Mifflin.
- 국민일보 2018. 12. 26일자. “무용으로 마음의 상처 치유... 장애인에게 희망 주고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1731&code=13120000&cp=nv>.
-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통계정보보고서.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117061>.
- 연합뉴스 2020. 4. 19일자. “장애인구 고령화 심화...2명 중 1명꼴 65세 이상 노년층.”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8021200017?input=1195m>.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 통계.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4&sub1=4](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4&sub1=4).
- 헤럴드경제 2017. 11. 10일자. “인간극장 고아라, 청각장애 딛고 발레리나 하게 된 이유는?.” [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711100828461509891\\_1](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711100828461509891_1).

[ 학교 사이트 (검색일 2020. 10. 1) ]

- 광주선우학교 <http://seonu.gen.sc.kr>
- 대구영화학교 [www.younghwa.sc.kr](http://www.younghwa.sc.kr)
- 대전원명학교 <http://wonmyeongsc.djsch.kr>
- 메이리학교 [www.meary.sc.kr](http://www.meary.sc.kr)
- 부산구화학교 [www.pskuhaw.sc.kr](http://www.pskuhaw.sc.kr)
- 부산배화학교 [school.busanedu.net/baehwa-s](http://school.busanedu.net/baehwa-s)
- 서울농학교 <http://seoulnong.sen.sc.kr>
- 서울삼성학교 <http://samsung.sen.sc.kr>
- 서울애화학교 <http://aewha.sen.sc.kr>
- 세종누리학교 <http://sjnuri.sjeduhs.kr>
- 소림학교 <http://sorim.sc.jne.kr>
- 안동진명학교 <http://school.gyo6.net/adjm>
- 에바다학교 <http://www.ebada.sc.kr>
- 인천성동학교 <http://sd.icesc.kr>
- 전주선화학교 <http://sunhwa.sc.kr>
- 제주영지학교 <http://youngji.jje.sc.kr>
- 창원천광학교 <http://cheongwang-s.gne.go.kr/cheongwang-s/main.do>
- 춘천계성학교 <http://kds76.gwe.sc.kr>
- 충주성심학교 [school.cbe.go.kr/sungsim-s/M01](http://school.cbe.go.kr/sungsim-s/M01)
- 포항명도학교 <http://school.gyo6.net/introPage/phmd/introPage.html>
- 한국구화학교 <http://kuhwa.sen.sc.kr>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국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용교육의 실태와 제언	발표자	강미리 박순자
		논찬자 (소속)	이주희 (세종대학교)

제가 논찬을 맞게 된 국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용교육의 실태와 제언은 국내 청각장애인들의 무용교육 실태를 밝히고 무용교육 현황에 대해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논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주변의 장애우들을 도와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그 인식을 가지고 장애우들의 삶의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점에서 청각장애인들의 무용교육의 실태를 이야기해주고 청각장애인들의 무용교육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 생각합니다.

청각장애인과 무용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30여편의 연구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무용계에 장애우들의 문화활동에 관한 관심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청각장애인들의 위한 무용교육의 확대와 여러 가지 정책적 방안, 행정적 지원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야기 하는 것보다 먼저 이러한 무용교육의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점은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의 부족입니다. 다양한 기관들의 장애인 보고자료를 보고하는 것은 좋은 의도였으나, 그 자료들 속의 청각장애인에 관한 내용들을 심도있이 분석한 것이 아닌 전체 장애인 수, 장애인 고용률 등 본 연구의 주제보다 더 넓은 범위의 주제들을 끌어옴으로서 청각장애인이 아닌 우리나라의 전체장애인들을 다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관들이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 보다는 그 안의 청각장애인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무용교육 현황이 문현희(2000), 김무희(2007), 배주옥(2014) 이 세가지의 논문분석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연구자료수가 너무나 미비하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연구자료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연구자의 주관적 오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설문 연구 혹은 현황파악등의 간단한 조사형식의 실험연구가 함께 병행되었다면 의미있는 논제에 더욱 큰 힘이 실릴 수 있는 연구가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을 바라보고 그 영역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은 본 논문이 갖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무용교육이 재고되어지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